

SSG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 빅세일 ‘복적복적’…안전관리는 ‘미흡’

카드 1200여 대 동나고 통로 막혀…고객·직원 뒤엉키며 불편 초래
마트 측 “안전 최우선으로 준비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고객 몰려”

2022년 11월 20일(월) 20:00

금 | 가 가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이마트 광주점에서 지난 19일 진행한 ‘빅세일’에 온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광주지역 이마트에서 대규모 할인행사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몰렸지만,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18~20일 ‘SSG 랜더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 대규모 할인행사를 열었다.

이 기간 이마트에서는 ‘붕지라면 2+1’, ‘초코파이 1+1’, ‘된장 1+1’, ‘주방세제 50% 할인’ 등 먹거리와 생필품 등의 대규모 할인행사가 진행됐다.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찾아가만 광주시 서구 화정동 이마트 광주점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동식 카트 1200여 대가 모두 동이 나 카트를 기다려 달라는 방송까지 나왔다.

특히 먹거리와 생필품을 판매하는 이마트 광주점 1층 대부분 구역에서는 카트를 끌고 다니는 손님과 매대를 채우려는 직원의 동선이 엉켜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라면 매대에서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일부 인기가 많은 제품 매대에서 손님들이 뒤엉켜 넘어지거나 매대 사이에 끼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 더구나 계산대부터 늘어선 줄이 통로까지 가로막으면서 갇혀버리는 손님도 부지기수였다.

마트 측은 행사 시작 후 1시간여가 지나서야 통행을 방해하는 이동식 매대를 옮기고 손님들의 카트를 가로로 정렬해 통제하면서 “안전이 중요하다”라는 방송을 반복했지만 혼란은 수 시간이 지나도록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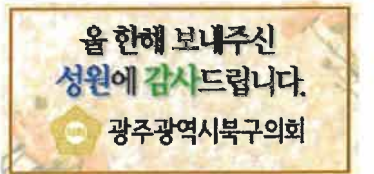


하이슈

[지천명의 오늘의 운세] 2022년 12월 12...
43년 만에 받은 ‘전사 확인서’
코로나19·독감·감기 ‘트리플데믹’ 우려
물가 상승에도...광주·전남 상장사 4곳...
‘시청 야외 스케이트장’ 올해도 이용 못해
5·18 피해자 정신적 피해보상법 본회의...
정부가 방제한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광주사·전남도 “수돗물 아껴 쓰세요” 절...
올해는 더 풍성하다 양림동에서 “메리크...
“이주 여성들의 잠재력 개발 돕고 싶어요”

실시간 뉴스

남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제25차 정기총...
[노르웨이 오슬로] 자연과 예술 그리고...
4년 만에 뚫힌 god...하늘색으로 물든 20...
한 눈에 보는 12월 11일 광주일보 카드뉴스
[지천명의 오늘의 운세] 2022년 12월 12...



← Google 광고

이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

상황이 이렇자 ‘이태원 헬러원 참사’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별다른 안전 대책 없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를 치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민혁(41) 씨는 “매대 사이에 갇히고, 2층으로 가려고 해도 통로가 막혀 빙 돌아야 하는 상황이 계속됐다”라며 “직원들이 와서 고객 동선을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민지(여·35) 씨도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몰리면서 말 그대로 꼼짝도 못 하는 상황이 몇 번 있었다”라며 “나도 모르게 이태원 참사가 생각이 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썩세일을 앞두고 고객과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철저히 준비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고객이 입장했다”라며 “방송을 활용해 밀집 해소 활동을 진행하고 고객이 몰리는 계산대에 직원을 배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설명했다.

/글·사진=천흥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Google 광고

이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



오늘의 주요뉴스

- [노르웨이 오슬로] 자연과 예술 그리고...
- 4년 만에 뭉친 god...하늘색으로 물든 20...
- 한 눈에 보는 12월 11일 광주일보 카드뉴스
- [지천명의 오늘의 운세] 2022년 12월 12...
- 정부가 방제한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

江原日報 | 경남신문 | 경인일보 | 春日新聞 | 대전일보 | 부산일보 | 釜山日報 | 제주일보

인사말 | 회사개요 | 광고안내 | 전화번호안내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고충처리인 제도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독자게시판

Copyright © 2009. | 주소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대표이사 : 김여중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5111 (대) | 편집장부하금환집
광주일보의 모든 권민출물 무단복제 사용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